

번역, 문학과 문화를 말한다*

-명작의 한·일·영 번역을 중심으로-

오경순**

〈 Abstract 〉

A translation indicating the literature and the culture:

Focusing on the Korean-Japanese-English translation in the masterpiece

This paper examines cross-cultural element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how they are accept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it analyzes how different viewpoints affect transl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crucial factor in novel translation.

The scope and the content of the analysis mainly focused on the opening paragraph of each novel and how the translator's strategies of "Domesticating Translation" and "Foreignizing Translation" are applied, in terms of the readability.

In translation of transcultural terminology, the translators are required to choose a precise strategic translation for accurate translation, such as Domesticating Translation, i.e. those familiar to readers, or Foreignizing Translation, i.e. those unfamiliar to readers.

It is not possible to translate without understanding culture. Ensuring cultural equivalence is the most difficult task in the translation process and the translators must pay attention. Especially, it is important in the translation of intercultural terms, where cultural equivalence does not exi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translation quality in response to the expectations of readers, and it will be adopted in the translation education to advance the skills of translation.

Field : Other Japanese Studies

Keywords : Cross-cultural acceptance, Translation strategy, Domesticating translation, Faithfulness, Foreignizing translation

1. 시작하며

번역은 이문화를 수용하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문화의 창이다. 따라서 번역은 이문화 간 소통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번역은 문학적이고 문학은 예술이며 번역문학은 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결국 번역작업은 문화의 확장, 문화의 재창조 작업이다.

문화의 이해 없이 번역은 불가능하다. 최적의 문화적 등가성 확보는 번역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9015)

** 가톨릭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번역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특히 문화적 등가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문화 용어 번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문화가 만나는 접점에 번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원문의 뜻을 번역문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번역어로 옮기는 일이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어로 옮긴다는 것은 번역문 문화에 맞게 이문화 수용과 변용이 가장 자연스럽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과 같다는 말이 있다. 번역문의 독자와 원문의 저자 둘 다를 섬겨야 하는데 이 경우에 중용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다.¹⁾

다시 말해서 언어와 문화, 의식구조, 가치관 등이 다른 한국-일본-미국의 고유 이문화 요소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1992)가 말하는 “원문의 저자를 번역문 독자에게 데려올 것인가 혹은 번역문 독자를 원문의 저자에게 데려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이문화 용어를 번역할 때 번역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친숙하게 하기(Domesticating Translation)’와 ‘낯설게 하기(Foreignizing Translation)’ 번역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친숙하게 하기’란 번역문 독자의 문화를 기준으로 이질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번역으로 ‘익숙한 방식의 번역’, ‘자국어화(自國化) 번역’이라고도 하며, 베누티(Venuti)는 ‘자국어화(domestication) 번역’이라 불렀다. ‘낯설게 하기’란 원문에 존재하는 이국적 요소를 번역문에 그대로 옮겨 의도적으로 번역문의 독자에게 낯선 경험을 하게 하는 번역으로 ‘이국화(異國化) 번역’ 방식이라 할 수 있다.²⁾ 번역은 단순한 ‘말 옮기기’가 아닌 ‘문화 옮기기’로 원문 문화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이 그대로 번역문 문화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 차이뿐 아니라 각각의 언어에도 그들 나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등가성이 담보된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한국-일본-미국 3국의 언어에 문화적 등가성³⁾이 존재하지 않는 이문화 용어의 번역에는 번역가의 시름과 고민이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다.

1) 김효중(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독일의 전통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한국번역학회 p.47

2) Venuti(1995:20) 참조

예를 들어 일본어 「3K業種」, 「3K職種」을 원문 그대로 「3K업종」, 「3K직종」으로 번역한다면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이 되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D(dangerous, dirty, difficult)직종」으로 바꾸어 번역한다면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Kade(1968:149)에 의하면 어떤 번역과정에서나 의미론적 등가는 최고의 우선권을 가진다. 즉 번역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미상의 불변성이 번역등가의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번역의 문제점은 두 언어 사이의 표현층위와 내용층위간의 1 : 1 등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두 언어 간의 등가 관계를 표현층위와 내용층위가 서로 얼마만큼의 상관성을 갖느냐에 따라 구분한 등가의 4단계를 일한 번역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Kade의 등가 4단계에 해당하는 예는 필자가 첨가하였다.)

(1) 완전한 등가(total translation equivalence): 1 대 1 등가

(2) 최적의 등가(optimal translation equivalence): 1 대 다수 등가

예) おば(叔母, 伯母, 小母) = 백모, 숙모, 외숙모, 이모, 고모, 숙모, 이종마 등.

(3) 근사치 등가(approximative translation equivalence): 1 대 부분 등가

예) 大丈夫 ⇒ 일본어 의미: 立派な男・危なげなくしっかりしているさま

⇒ 한국어 의미: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

チンドン屋 ⇒ 일본어 의미: 人目につきやすい服装をし、太鼓・三味線・鉦・らっぱ・クラリネットなどをならしながら大道で広告・宣伝をする人.

⇒ 한국어 의미: 광고쟁이

(4) 무의 등가(등가어 부재)zero translation equivalence: 1 대 0 등가

예) 일본어: 고다쓰(火燧, こたつ), 다다미畳(たたみ), 데루테루보즈照る照る坊主(てるてるぼうず)

한국어: 된장녀, 386세대

본고는 언어와 문화와 사고가 상이한 한국·일본·미국의 이문화 요소가 실제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문화변용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소설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인 '번역의 시점(視點, point of view)'에 착안하여 시점의 차이로 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고찰 범위와 고찰 내용은 주로 각 소설의 모두(冒頭)부분을 중심으로 '친숙하게 하기(Domesticating Translation)'와 '낯설게 하기(Foreignizing Translation)' 번역 전략을 각각의 번역가가 어떻게 구사하고 적용했는지 집중 분석·고찰하였다.

2. 고찰 자료와 범위

고찰 자료는 아래 (1)~(3)의 한국어·일본어·영어 원작소설 각 한 작품씩 세 작품과 다수의 한국어 역과 일본어 역 번역 작품이다.

고찰 범위와 고찰 내용은 주로 각 소설의 모두(冒頭)부분을 중심으로 번역가의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과 번역의 시점(視點, point of view)에 초점을 맞춰 분석·고찰하였다.

- (1) 『雪國』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著
 한국어 역 : 『설국』 金巢雲 譯의 9종
 영어 역 : 『Snow country』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Edward G. Seidensticker) 訳
- (2) 『The Catcher in the Rye』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J.D. Salinger) 著
 한국어 역 : 『호밀밭의 파수꾼』 공경희 訳의 5종
 일본어 역 :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무리카미 하루키(村上春樹) 訳
 『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노자키 다카시(野崎孝) 訳
- (3)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著
 일본어 역 : 『母をお願い』 安宇植 訳
 영어 역 : 『Please Look After Mom』 김지영 訳

3. 고찰 및 분석

3.1 『雪國(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著 (영어 訳 『Snow country』 · 한국어 訳 『설국』)

3.1.1 작품 개요

1934년 니가타현(新潟県) 에치고(越後)의 유지와(湯澤) 온천 마을을 처음 찾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후 3년 동안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해 소설 『雪國』을 집필한다.⁴⁾ 그때마다 묵었던 곳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4) 『雪國』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1935년부터 『문예춘추(文藝春秋)』 등의 문학잡지에 연재하였던 12편의 단편들을 모아 1차 중편으로 완성되었고, 1948년 최종 완결판이 나오기까지 13년에 걸쳐 수정과 가필을 거듭해 완성

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한 다카한(高半) 여관으로 2층의 가장 전망 좋은 방이었다. 물론 이 여관은 작가 본인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마무라(島村)가 고마코(駒子)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다.

『雪國』은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도쿄(東京)에서 기차를 타고 부모가 남겨준 유산으로 무위도식하는 무용 평론가인 시마무라가 게이샤(芸者)인 고마코에게 끌려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의 온천장을 세 번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마을 처녀인 아름답고 순결한 소녀 요코(葉子)의 시선과 의식을 통해 백설(白雪)에 뒤덮인 온천장과 그 일대에 펼쳐진 자연과 인정, 풍속 등이 병풍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전개된다.(김순희, 2014:148)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 전통미를 추구한 일본인 작가 중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감각적 표현과 문체를 구사했다는 평을 듣는다. 『雪國』은 “일본인 마음의 정수를 뛰어난 감수성으로 표현한 서술의 정교함” 덕분에 1968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雪國』의 첫 두 문장은 일본문학사에서 최고의 명문(名文)으로 꼽힐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 소설의 도입부 중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는다. 소설이지만 마치 한 편의 하이쿠를 읽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하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장들이다. 이 두 문장에는 일본 특유의 리듬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번역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⁵⁾

3.1.2 고찰 원문과 번역문

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夜の底が白くなった。信号所に汽車が止まった。

K1.⁶⁾ 접경(원문은 国境. 우리들의 湖南, 嶺南같은 지명을 國으로 부르던 봉건시대의 호칭이 지금도 간혹 쓰이고 있다. 여기서 국경이란 群馬縣(上州)과 新潟縣(越後)의 접경이란 뜻)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면 눈고장(원문은 雪国. 앞의 주와 같은 뜻이며, 눈이 많은 新潟縣 일대를 일반적으로 『유기구니(雪国)』라고 부른다. 이 작품의 무대는 新潟縣 湯沢温泉)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환해졌다. 기차는 신호소(信号所) 앞에서 멈췄다. (金巢雲 譯, 1972)

K2. 긴 터널을 빠져나 설국이었다. 대지는 밤하늘 아래 하얗게 깔려 있었다. 신호소에 기차가 정거했다. (이육정 譯註, 1979)

K3. 지방의 경계에 있는 긴 터널을 빠져 나가자, 설국(雪國. ‘눈의 고장’이라는 뜻-역주)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진 듯했다. 신호소(信號所)에 기차가 멎었다. (하근찬 訳, 1984)

K4. 현경(註로 처리: 군마 현群馬縣과 니가타 현新潟縣과의 접경임을 뜻함)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면 설국雪国(註로 처리: 눈이 많은 고장이란 뜻)이었다. 밤의 끝자락은 이미 하얘졌다. 신호소信號所에 기차가 멈췄다. (김진욱 訳, 1985)

된 작품이다.

5) 최재천 <중앙일보, 2014.3.15>

6) 기호 설명: 본고 고찰에서 다수의 번역서에서 용례를 인용한 경우 ‘K1~K10’, ‘J1~J2’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K’는 한국어 역을, ‘J’는 일본어 역을 뜻한다. 번역자 이름은 각 용례에 병기하였다.

K5. 접경에 있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바로 눈의 고장 설국(雪國)이었다. 밤의 대지는 온통 흰빛이 있었다. 기차가 플랫폼에 멈추었다. (최을림 訳, 1988)

K6.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면 바로 눈의 고장, 즉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환해졌다. 기차는 신호소 앞에서 멈추었다. (한영순 訳, 1991)

K7. 접경의 긴 터널(군마현과 니가타현의 접경지대에 있는 기요미즈)을 빠져 나오니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雪國)이었다.(니가타현 일대를 일반적으로 ‘유키구니(雪國)’라 부르는데, 이 소설은 니가타현 유노사와 온천이 무대임) 밤의 밑바닥이 환해졌다. 신호소 앞에서 기차가 멎었다. (민병산 訳, 1992)

K8. 국경의 터널을 빠져나가니 설국雪國(註로 처리: 눈이 많은 고장이라는 뜻)이었다. 밤의 끝자락은 이미 희뿌연히 밝아 왔다. 신호소에 기차가 멎었다. (유승휴 訳, 2001)

K9. 국경(註로 처리: 군마현[群馬縣]과 니가타 현[新潟縣]의 접경을 말한다. 본문의 <국경>은 모두 이 뜻이다)의 긴 터널(註로 처리: 군마현과 니가타 현을 있는 시미즈[清水]터널을 가리킨다)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 (유숙자 訳, 2002)

K10.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설국(雪國)이었다. 밤의 밑동이 희어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췄다. (김채수 編譯, 2010)

영어 訳: The train came out of the long tunnel into the snow country. The earth lay white under the night sky. The train pulled up at a signal stop. (Edward G. Scidensticker 訳, 1957)

⇒ 영어역의 한국어직역.

기차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설국으로 나왔다. 대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하얗게 누워 있다. 기차는 신호소에 멈추어 섰다.

3.1.3 고찰 및 분석 : ‘번역의 시점(視點, point of view)’ 비교

시점(視點, point of view)⁷⁾이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화자)의 시각 혹은 관점을 일컫는다.

7) 인지언어학 사전 풀이에 따르면, ‘시점/관점’은 인간이 외계를 이해하는 해석에 작용하는 인지적 특징 중 하나이다. ‘시점/관점’이라는 용어가 엄밀한 구별 없이 쓰이는 경우는 주체인 화자가 상황 해석에서 취하는 견해·관점이라는 뜻이며, 시점(perspective)과 관점(viewpoint)을 구별하는 경우 시점은 입장을 포함한 넓은 용법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관점뿐만 아니라 모습과 바탕의 관계, 직시(deixis) 상의 위치관계, 방향성, 주관화 등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인다.(임지룡 외 공역, 2004:125-126). 정인아(2012:466)에서 재인용. ‘시점’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찰자, 화자)이 세계(사태)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기술하는 위치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인아, 2012:466)

따라서 소설의 시점이란 소설의 진행이 어떤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되는가 하는 관찰의 각도와 위치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소설의 시점은 1인칭과 3인칭 두 가지이다. 소설 속 주인공인 1인칭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1인칭 시점이라면, 소설 밖 서술자(화자)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 는 경우가 3인칭 시점이다.

일본어 원문은 기차를 타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주인공 시마무라(島村)가 창밖을 바라보며 느낀 설국의 아름다운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의 시점은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주인공 시마 무라(島村)의 눈, 즉 내부에 시점이 고정되어 있다. 터널을 빠져나와 눈 덮인 설국으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 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인 양 인식한다. 또한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주인공 시마무라(島村) 눈앞에 펼쳐진 설국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지만 일본어 원문에 주어 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 역에서도 시점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일본어 원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역(K1~K10) 모두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주인공 시마무라(島村)의 시점, 즉 내부의 시점에서 눈앞 에 펼쳐진 설국을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1인칭 시점 서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어 역을 보면 터널을 빠져나와 설국으로 달려가는 기차의 영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즉, 외부 에 시점이 고정되어 있다. 출구 쪽에서 터널을 통과해 빠져나오는 기차를 밖에서 보고 있는 듯한 장면이 연 상된다. 즉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기차를 바라보는 듯 인식되며, 기차 밖에서 바라본 설 국의 전체상을 객관적으로 3인칭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영어 구문의 특성상 원문에 없는 주어(The train)가 명시되어 있으며 원문과 달리 영어 역은 'The earth'를 '의인화'하였고 '夜の底'에서 '밑바닥(底)'의 번역이 생략되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 구조상 문법 구조와 어법, 화용적 특징, 관용어법, 맥락 등 유사한 점이 많지만 영어의 언어 구조나 언어 체계와는 크게 다르다. 주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문장이 성립하는 영어의 언어 구조 상 영어 번역의 시점은 첫 문장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번역은 원문권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이 그대로 번역문권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인 시점의 차이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명문으로 손 꼽히는 일본어 원문 『雪國』의 첫 문장의 느낌과 감동의 크기는 영어 역 『Snow country』의 첫 문장의 느 낌과 감동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번역의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2 『The Catcher in the Rye』 제목 데이비드 샐린저(J. D. Salinger)

著(일본어 訳 『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한국어 訳 『호밀밭의 파수꾼』)

3.2.1 작품 개요

『The Catcher in the Rye』는 샐린저(J. D. Salinger)⁸⁾를 단번에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으로 거

8) 샐린저는 1919년 미국 뉴욕시에서 부유한 유태계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벨리포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와 컬럼비아대학교 등에서 창작수업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중 보병으로 소집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하였으나, 군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입원하 기도 했다. 샐린저는 단편 작품들을 주로 『뉴욕커 The New Yorker』에 발표했다. 그리고 단 한편의 소설 『호 밀밭 파수꾼』(1951)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공경희역(2001) 『호밀밭의 파수꾼』 제목 데이비드 샐린저 著 민음사 부록: [제목 데이비드 샐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침없는 언어와 사회성 짙은 소재로 1951년 출간되자마자 전후 세대의 젊은 층을 사로잡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에도 매년 30만부 정도가 팔리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 작가 윌리엄 포크너조차도 “당대 최고의 작품(best work of the present generation of writing)”이라고 극찬한 작품이다.⁹⁾

또한 이 작품은 존 레논의 암살범 마크 데이빗 체프먼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범인 존 헝크리가 탐독한 소설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존 레논의 암살범 마크 데이빗 체프먼은 암살 순간 그의 손에 『*The Catcher in the Rye*』가 들려 있었으며 그의 암살 동기는 거짓과 가식에 대한 콜필드의 절규 때문이라고 밝혔다.

『*The Catcher in the Rye*』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가 크리스마스 휴가 직전 고등학교에서 또 한 번의 퇴학을 당해 집에 돌아오기까지 사흘간 겪는 일들이 독백으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콜필드는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가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질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또한 『*The Catcher in the Rye*』는 성에 눈떠 가는 소년의 눈으로 본 세상의 인간 조건에 대한 예민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는 소설이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¹⁰⁾이란 제목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홀든의 장래 희망을 뜻한다. 아이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홀든이 몹시 경멸하는 ‘위선자들(phony)’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은유이다.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바보 같겠지만 말이야”¹¹⁾

『*The Catcher in the Rye*』의 번역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주인공인 청소년 홀든 콜필드가 빈번하게 구사하는 속어와 비어 및 습관적으로 굳어진 홀든 특유의 어휘와 말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길게 연결하면서 서술하는 주인공의 내적 고백의 어감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하는 번역의 정확성과 더불어 어감 전달의 적절성 및 우리말 표현의 적합성에 있다

3.2.2 고찰 원문과 번역문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the first thing you'll probably want to know is where I was born, and what my lousy childhood was like, and how my parents were occupied and all before they had me, and all that David Copperfield kind of crap, but I don't feel like going into it,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K1.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아마 **너**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구차하게 보냈으며,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는 무슨 일을 했는지 따위를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식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말이야.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이가형 訳, 1979)

9) 김성곤(2005) 『J.D. 샐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살림출판사 p.38

10)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은 스코틀랜드의 민요 「밀밭에서」에서 한 구절을 따온 것이다.

김옥동(2001) 『미국 소설의 이해』 서강 인문정신 006 종합공동체 소나무간행 p.320

11) 『호밀밭의 파수꾼』 공경희 역 pp.229~230

K2.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지저분한 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며,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시시껄렁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나로서도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이덕형 訳, 1985)

K3. 만일 **내가** 정말 애길 듣고 싶어 한다면 말이야. 우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하찮은 유년 시절은 어떤 꼴이었는데,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는 뭘 하고 살았는지 어찌고저찌고 하는, 말하자면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시시껄렁한 것부터 들으려고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걸 털어놓고 싶진 않단다.

(윤용성 訳, 1993)

K4. 정말이지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내 거지 같은 유년 시절이 어떠했고,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님이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따위를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시시콜콜하게 내력이나 캐는 데이비드 코퍼필드식 얘기들 말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그런 이야기는 늘어놓고 싶지 않거든요.

(김옥동·염경숙 訳, 1994년)

K5.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끄적했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와 같은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다. 하지만 사실, 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가 않다.

(공경희 訳, 2001)

K6. 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하는 따위의 이야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나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그런 시시한 이야기 따위는 늘어놓고 싶지 않다.

(김철근 訳, 2003)

J1. もしも**君が**,ほんとうにこの話を聞きたいんならだな、まず、僕がどこで生まれたかとか、チャチな幼年時代はどんなだったのかとか、僕が生まれる前に両親は何をやってたかとか、そういった《デーヴィッドカバーフィールド》式のくだらないことから聞きたがるかもしれないけどさ、実をいうと僕は、そんなことはしゃべりたくないんだな。

(野崎孝 訳, 1964)

J2. こうして話を始めるとなると、**君は**まず最初に、僕がどこで生まれたかとか、どんなみっともない子ども時代を送ったかとか、僕が生まれる前に両親が何をしていたかとか、その手のデーヴィッド・カバーフィールド的なしょうもないあれこれを知りうるかもしれない。でもはっきり言ってねその手の話をする気になれないんだよ。

(村上春樹 訳, 2003)

3.2.3 고찰 및 분석 : 홀든 콜필드의 독특한 말투인 「you」의 번역 비교

이 소설에서 나오는 홀든 콜필드 어휘의 대부분은 1950년대 무렵의 미국 뉴욕 근방의 유행어인데, 그런 특수한 형태로 기술된 어휘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할 때는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세속적 유행어를 어느 정도까지 번역할 것이냐 하는 번역 수위 조절이 실제 번역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소설이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어휘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하면서도 문맥에 따라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요컨대 『*The Catcher in the Rye*』 번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거칠 것 없는 언사, 당시로서는 사회적 터부였던 적나라한 욕설 그리고 그의 저항적 태도를 나타내는 속어와 비어 및 독특한 어휘와 말투의 비중이 큰 소설인 만큼 번역의 성공 여부도 그러한 홀든 콜필드의 어휘와 말투의 어감을 어떻게 적절하게 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소설에서 홀든 콜필드의 독특한 어휘와 말투는 「sad」, 「phony」, 「kill」, 「you」, 「goddam」, 「sonuvabitch」, 「as hell」, 「bastard」, 「Chrissake」 등이 있다. 이들 중 모두(冒頭)에 나오는 「you」의 한국어 역과 일본어 역을 충실성(faithfulness, 번역의 정확성 및 어감 전달의 적절성)과 가독성(readability, 우리말 표현의 적합성)¹²⁾의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한일 번역의 차이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은 1인칭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이다.

첫 문장에서 화자인 홀든이 「you」를 향해 말을 걸고 있다. 이 때 「you」를 말을 듣는 존재로 번역하느냐, 혹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느낌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홀든이 자주 구사하는 「you」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여동생 피비가 홀든을 부르는 호칭은 「오빠」가 아니라 「너(あなた)」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귀여운 여동생이 아닌, 자신의 일부이며 과거로부터 빠져나온 가설이며 환영이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이 소설에서 「you」는 김춘미(2004)¹⁴⁾에서도 언급했듯이, 번역가가 「you」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소설 전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특히 번역의 시점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핵심 어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you」의 한국어 역과 일본어 역을 비교하면 한국어 역은 이가형 역과 운용성 역 외는 모두 「you」의 번역이 빠진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 되고 말았다. 그에 비해 무라카미 하루키와 노자키 다카시의 일본어 역은 「you」를 「君」로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어감을 적절하게 살린 충실한 번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기본 범주로서 충실성과 가독성의 영역은 필자의 용어가 아닌, '영미문학연구회' 소속 연구자 44명이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년 반에 걸친 공동작업 끝에 완성한 연구보고서의 '번역 평가의 범주와 기준'에서 인용하였다.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주)창비 pp.21-25

13)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pp.48-49, pp.113-114

무라카미는 「you」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빈도로 따지면 세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라고 말한다. 그 기준으로는 자연스러움이나 정확함이 지켜지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감각적인 문제였으며, 영어와 일본어가 지닌 성격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キャッチャー』작품은 「you」라는 단어를 기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you」의 대상이 홀든이기도 하고 독자이기도 한 교묘한 장치(기법)를 쓰고 있다고 했으며, 원작에서 완벽하게 구사되고 있는 「you」를 번역에서도 멋지게 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14) 『호밀밭의 파수꾼』에서는 「you」를 어떻게 해독하느냐는 번역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그러한 점에서 번역가가 「you」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김춘미(2004) 「소설가와 번역2」 『2004년도 한국일본학회 산학학회합동학술대회 Proceedings』 한국일본학회 p.171

3.3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著

(일본어 譯 『母をお願い』, 영어 譯 『PLEASE LOOK AFTER MOM』)

3.3.1 작품 개요

침순 생일을 서울에 있는 자식 집에서 보내려고 아버지와 함께 상경한 뇌질환을 앓는 엄마가 서울 지하철 역에서 그만 아버지를 놓쳐 실종된다. 온 가족이 엄마를 찾아 나서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어느 곳에서도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큰딸은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기 시작한다.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큰딸, 큰아들, 남편, 아버지, 어머니 자신, 다시 큰딸로 이야기의 시점을 바꾸어가며 엄마의 존재를 회상한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의 존재와 엄마의 의미가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잊혀 진 존재였던 엄마의 존재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가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2008년10월 출간)는 국내 판매 부수 2백만 부를 넘긴 초대형 베스트셀러이다.(2012년 통계)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판 『Please Look After Mom』(2011년4월 출간)이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를 다시 썼다. 영문판 초판 발행 부수 10만부, 출간 직후 아마존닷컴 전체 순위 20위권에 진입했다.<국민일보, 2011.4.15> 한국문학 초유의 '사건'이다.<중앙일보, 2011.4.9> 번역의 현지화(domestication)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첫 사례로 평가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경우 전체 출판 도서 중 번역서의 비중은 3%정도이며 게다가 번역 문학작품 비중만 따지면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엄마를 부탁해』 소설 전반에 흐르는 한국 고유의 토속적 이문화 용어 및 배경이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현지문화에 맞게 문화변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번역과정의 성과는 앞으로 번역학이 지향해야 하는 번역작업의 방향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⁵⁾

3.3.2 고찰 원문과 번역문 및 고찰·분석

(1) 엄마를 잃어버린지 일주일째다.

오빠 집에 모여 있던 너의 가족들은 궁리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おんまの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一週間目だ。

兄の実家に集まっていたあなたの家族たちは思案のあげく、チラシをつくってオンマがいなくなった場所の周辺へ配ることにした。ひとまずチラシの文案を練ってみることにした。

15) 그러나 모린 코리건 (Maureen Corrigan)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 (National Public Radio)에 출연해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는 “김치냄새 나는 크리넥스 소설의 싸구려 위안”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昔からのやり方である。

(安宇植 訳, 2011)

IT'S BEEN ONE WEEK since Mom went missing.

The family is gathered at your eldest brother Hyong-chol's house, bouncing ideas off each other. You decide to make flyers and hand them out where Mom was last seen. The first thing to do, everyone agrees, is to draft a flyer. Of course, a flyer is an old-fashioned response to a crisis like this.

(Chi-Young Kim 訳, 2011)

한국어 원문의 '엄마를 잃어버리다'의 일본어 역 '엄마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되다'와 영어 역 '엄마가 행방 불명되다'는 '엄마를 잃어버린' 책임의 소재를 가를 때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능동문 주체의 표현, 즉 행동주체 중심의 표현을 선호하며 행동주체인 주어(주어)를 부각하고 명시한다. 반면에 일본어는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은 피행위자인 화자 중심의 표현을 선호하며 주어(주어)를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 일본어 역 '엄마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되다'에서처럼 행동주체인 행위자(주어)가 명시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한국어 원문에서 주어는 생략되었지만 '잃어버리다'라는 타동사를 써서 엄마를 잃어버린 책임이 가족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일본어 역과 영어 역에서는 '엄마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되다', '엄마가 행방불명되다'라는 자동사를 사용하여 그 행위자(주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요컨대 능동문 표현의 한국어 원문을 피동문 표현으로 번역함으로써 일본어 역과 영어 역은 공히 의미상 현저한 차이를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역은 '엄마'와 '아빠'의 번역에서 '낮설게 하기' 번역 전략을 사용하고, 영어 역은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일본어 역과 영어 역의 번역 전략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엄마 / お母さん / Mom

아빠 / アッパ / Father

- (2) 일 년 전 여름에 집에 갔을 때 **진돗개** 한 마리가 헛간 옆에 매여 있었다. 날은 찡찡 더운데 개 줄을 어찌나 바투 매어놨는지 숨을 할딱거리는 개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같이 느껴졌다.

一年前の夏にオンマの家へ帰ったら、一匹の**珍島犬**が納屋の傍につながれていた。じりじりと真夏の陽射しが照りつける暑さのなかで、どんなに首輪を短くつないであったのか、ぜいぜい息を弾ませているその犬が、いまにも死んでしまいかねないように感じられた。

(安宇植 訳, 2011)

A year before, when you'd gone home in the summer, there was a Chindo tied next to the shed. It was sweltering and the chain was so short that it seemed the panting dog, unable to get out of the sun, would fall over dead at any moment.

(Chi-Young Kim 訳, 2011)

원문의 '진돗개'¹⁶⁾를 영어 역에서 'Chindo'로 번역하였는데 영미문화권 독자가 'Chindo'를 'Chindo dog', 'Jindo dog'로 이해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지명(地名)인 '진도'와 한국 고유의 개 품종을 뜻하는 '진돗개'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진돗개'는 영어로 'Chindo dog', 'Jindo dog'로 번역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일본어 역의 '珍島犬'는 한국의 이문화 요소인 '진돗개'를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을 취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 (3) 한번은 엄마가 이른 아침에 **새참**까지 싸가지고 산밭에 갔는데 누가 먼저 와 앉으려 발을 매고 있더라. 누구냐고 물으니 지나가는 사람인데 발에 풀이 너무 많아서 좀 뽑아주고 가려고 한다고 했단다.

一度などオンマは朝早くに、**おやつ**まで包んで山の畑へ出かけていったけれど、何者かがひと足先にやってきて畑の草取りをしていたらしい。誰だと訊ねると、通りすがりの者だけれど畑にあんまり雑草がたくさん生い茂っているので、ちょっと抜き取ってから行きたいと思ってね、と答えたという。

(安宇植 訳, 2011)

Once, Mom went to the fields in the early morning, bringing along a snack for later, but someone was there already, bent over and pulling weeds. When she asked who he was, he said he was passing by and stopped to pull weeds because there was so many.

(Chi-Young Kim 訳, 2011)

'새참'이란 사이참의 준말로 육체노동이 심한 노동자나 농번기의 농부들이 하루 3끼 식사 외 한두 번 더하게 되는 식사를 말한다.¹⁷⁾ 한편 영어 'snack'나 일본어 'おやつ'는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먹을거리나 간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새참'의 영어 역인 'snack'나 일본어 역 'おやつ'는 번역 등가어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밖에 한국어 원문의 이문화 용어의 번역등가어로 사용된 영어 역과 일본어 역 사례 몇 가지를 들면 아래와 같다. '물김치'를 영어로 'water kimchi', 일본어로 '水キムチ'로, '깍두기'를 일본어로 'カクテギ'로, '반찬'을 영어로 'panchan'으로 번역한 경우는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깍두기'를 'kimchi'로, '반찬'을 'side dishes'로 번역한 영어 역은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을 취했다 할 수 있다.

물김치 / 영어 역: water kimchi / 일본어 역: 水キムチ

깍두기 / 영어 역: kimchi / 일본어 역: カクテギ

반찬 / 영어 역: panchan / side dishes / 일본어 역: おかず

16) 진돗개는 한국 고유의 개 품종 중 하나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냥개이다. 1962년 진돗개를 천연기념 제53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2005년 케넬 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었다.

17) "새참은 아침 식사를 새벽에 일찍 했을 경우에는 오전 10시쯤에 하고, 또 한 번의 새참은 점심과 저녁 사이인 오후 4시경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출처: 한국민족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4) 싸우지 마라. 니 마음 모리는 것 아니다 그린다고 뭘 방도가 있냐. 나 만나 못나게 살었지만 덕이 많은 사람임게 살어는 있을 것이여. 살어 있으면 뭘 소식이 오지 않겠냐.

喧嘩はするなって、おまえの気持がわからんではないけど、そんなことをしたからって、うまい考えが浮かんでくるわけがなし。わしみたいな甲斐性なしの男に巡り会ったおかげで、無様な生き様をさらす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けど、人徳のある人だから、どこぞに生きておるに違いないだよ。生きておったら、何らかの消息くらいはあるじゃろうて。

(安宇植 訳, 2011)

Don't fight. I know what you're feeling. But fighting doesn't help anything. Your mom met me and had a hard life. But she is a kind person. So I'm sure she's at least alive. And if she's alive, we'll hear something.

(Chi-Young Kim 訳, 2011)

일본어 역과는 달리 영어 역에서는 '전라도 사투리' 번역이 전부 누락되었다.

번역가 김지영은 영어 역에서 사투리 번역 누락에 대해 “사투리와 존댓말은 당연히 잃어버리는 요소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파이낸셜뉴스, 2014.6.6)

한국의 토속적인 전라도 사투리의 어감과 뉘앙스를 영어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어로 그대로 담아 내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김지영은 『Please Look After Mom』에서 일관되게 ‘친숙하게 하기(Domesticating Translation, 自國化)’ 번역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사실, 대다수 미국인은 우연하게나마 한국 소설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미국인들은 번역서 읽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전체 출간도서 가운데 문학 번역서는 1%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국 작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 작가의 출간 사례가 얼마나 적은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어의 구조와 한국의 문학 전통 그리고 문화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너무 이질적이고 낯설다. 나는 독서 경험을 방해할 만한 장벽을 허물어서 새로운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일보, 2011.4.15)

하지만 김지영은 『엄마를 부탁해』 번역 중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라 실토했던 남미 원주민을 지칭한 ‘인디 오 여인’을 북미 원주민을 뜻하는 ‘Indian’으로 번역한 실수를 고백하기도 했는데, 이는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4. 마치며

번역에 왕도는 없다. 누구나가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된 완벽한 번역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완벽한 번역이론 또한 있을 수 없으며 번역은 번역자가 실제 번역작업을 해나가면서 끊임없

이 고민하며 번역 전략을 선택해야만 하는 고된 창작 과정이다.

모든 언어에는 특수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편성도 존재한다. 번역은 바로 언어의 보편성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언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논리적·문법적으로 기술되고 분석될 수 있는 기호체계이다. 언어상대성 관점에서 본 번역불가능성 이론 또한 존재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번역은 줄곧 행해져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출간 된 서적 중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원문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번역 작품인 성경번역을 들 수 있다. 성경번역은 수많은 민족어의 형성과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¹⁸⁾ 약 3,25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¹⁹⁾

보고는 언어와 문화와 사고가 상이한 한국·일본·미국의 이문화 용어가 실제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문화변용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소설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인 번역의 시점에 착안하여 시점의 차이로 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그 양상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고찰 내용으로는 이문화 용어 번역에서 ‘친숙하게 하기(自國化, Domesticating Translation)’와 ‘낯설게 하기(異國化, Foreignizing Translation)’ 번역 전략을 각각의 번역가가 어떻게 구사하고 적용했는지를 집중 분석하고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문화 용어 번역에서 번역자는 번역문 독자의 문화에 익숙한 ‘친숙하게 하기’로 번역할 것인지 혹은 번역문 독자에게 생소한 ‘낯설게 하기’로 번역하여 보존할 것인지 ‘올바른 번역(正譯)’을 하기 위한 번역자의 신중한 번역 전략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

번역문은 일차적으로는 번역문 체계에 적합하여 부자연스럽거나 번역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원문의 언어 내적·외적 의미에 부합하는 오역 없는 정확한 어감 및 의미전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질 좋은 번역에 대한 논의는 언어권별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모든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번역 이론과 번역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번역가는 ‘원문 이해 능력’과 ‘번역문 표현 능력’으로 본질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번역가의 번역이 수준 높은 번역이며 명 번역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제아무리 어학 실력이 뛰어나고 번역이론을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번역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란 어렵다. 요리를 만들 최고의 주방용 칼과 신선한 제철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고문헌】

김성근(2005) 『J.D. 셀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살림출판사

18) 원영희(2006:81)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동화와 번역 발표논문집』 2006 봄 학술대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적 경전의 번역이 그 나라의 번역 사업의 시작일 뿐 아니라 최고의 문화적 적이 된다. 특히 기독교의 성경번역은 많은 민족어의 형성과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관련 언급으로 이상섭(1990:4)은 민족어의 형성과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예로 루터(Luther)의 독일어 성경번역을 들었다. 「번역 일반론」 『국어생활』 21

19)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에서 발표한 ‘2016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880개의 언어 중 성서는 3,255개(2016년 12월 말 기준)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기독교 한국신문, 2017.6.8>

- 김순미(2010) 「문학 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 한국번역학회 pp.127-156
- 김순희(2014)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통해서 본 번역의 양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44 한국일본근대학회 pp.143-156
- 김영신(2012)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 『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한국통번역학회 pp.63-78
- 김육동(2001) 『미국 소설의 이해』 서강 인문정신 006 종합공동체 소나무간행
- 김효중(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독일의 전통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한국번역학회 p.47
- 박진수(2003) 「소설의 번역과 시점의 문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설국』(雪國)의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比較文學』 31 한국비교문학회 pp.279-298
- 박철우(2014)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自國化, domesticating)'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13-2 한국문예창작학회 pp.181-197
- 성혜경(2015)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번역」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199-221
- 신경숙(2008) 『엄마를 부탁해』 (주)창비
- 심윤섭(2008)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보는 한일 번역양상 변화 -남녀간의 공대법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6-2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37-162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주)창비 pp.4-35
- 오경순(2006) 「『The Catcher in the Rye』의 韓日 翻譯 比較 -충실성과 가독성의 관점에서-」 『日本文化學報』 30 韓國日本文化學會 pp.131-147
- _____ (2010) 「日韓 翻譯 戰略: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이문화 용어와 외래어 표기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 27 韓國日本近代學會 pp.95-114
- _____ (2014) 「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문화변용」 『日本近代學研究』 46 韓國日本近代學會 pp.99-116
- 원영희(2006)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동화와 번역 발표논문집』 2006 봄 학술대회 p.81
- 윤선경(2013) 「문학번역 연구 현황과 과제: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 영어영문학』 57-3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pp.125-145
- 이상섭(1990) 「번역 일반론」 『국어생활』 21 p.4
- 임지룡 외 공역(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pp.125-126
- 정인아(2012) 「한국어의 시점(視點)에 관한 연구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야(視野)를 중심으로」 『語學研究』 48-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p.463-485
- 정호정(2012)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한국통번역학회 pp.255-281
- 川端康成(2006) 『雪國』 新潮文庫 新潮社
-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翻譯夜話 2 サリンジャー戦記』 文芸春秋
- 村上春樹 (2002) 「翻譯を語る - 翻訳すること、翻訳されること -」 『カチの声』 國際交流基金 ソウル文化センター pp.1-3
- Edward G. Seidensticker tr. (1957) *Snow country*, Yasunari Kawabata. New York : Alfred A. Knopf Inc.
- J.D.Salinger (2003) 『*The Catcher in the Rye*』 KODANSHA English Library
- Kade, Otto(1968) *Zufall und Gesetzmässigkeit in der Übersetzung*. VEB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p.149
- Schleiermacher, F.(1992)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In R. Schulte & J. Biguenet(Eds.),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25-238
- Venuti, Lawrence(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20

【용례 출전】

- 공경희 역(200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著 민음사
金巢雲 譯(1972) 『雪國·千羽鶴』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同和出版公社
김육동·염경숙 역(1994년) 『호밀밭의 파수꾼』 J.D. 샬린저 著 현암사
김진욱 역(1985)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범우사
김채수 편역(2010)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책사랑
김철곤 역(2003) 『호밀밭의 파수꾼』 J.D.샬린저 著 민중출판사
민병산 역(1992) 『설국 외』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삼성출판사
유숙자 역(2002)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민음사
유승휴 역(2001)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청목사
윤용성 역(1993) 『호밀밭의 파수꾼』 J.D.샬린저 著 문학사상사
이가형 역(1979) 『호밀밭의 파수꾼』 J.D.샬린저 著 동서문화사
이덕형 역(1985) 『호밀밭의 파수꾼』 J.D.샬린저 著 문예출판사
이육정 譯註(1979) 『雪國』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E. G. 사이텐 스티커 英譯 徳文出版社
최을림 역(1988)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중앙문화사
하근찬 역(1984)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학원사
한영순 역(1991)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著 어문각
安宇植 訳(2011) 『母を願ひ』 申京淑 著 集英社
野崎孝 訳(1964) J.D.サリンジャー-『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白水社
村上春樹 訳 (2003) J.D.サリンジャー-『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白水社
Chi-Young Kim tr., 2011, *PLEASE LOOK AFTER MOM*, Kyung-Sook Shin. New York: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 要 旨 〉

번역, 文学と文化を語る

- 名作の韓・日・英翻訳を中心に -

本稿は言語と文化と思考が異なる韓国・日本・米国の異文化要素が実際の翻訳過程においてどのように受容され、文化変容がなされているのかを中心に考察したものである。また、小説の翻訳で重要な要素である翻訳の視点に注目し、その視点の差によって翻訳がどう変わってくるのか、その様相についても考察した。

考察の範囲と内容は主に各小説の冒頭部分を中心に翻訳者の「親しみのある翻訳(Domesticating Translation)」と「親しみのない翻訳(Foreignizing Translation)」の翻訳戦略を翻訳者がどのように駆使し、適用したかについて可読性の観点から分析し、考察を行った。

異文化用語の場合、翻訳者の「親しみのある翻訳」と「親しみのない翻訳」の翻訳戦略は「正しい訳」を行うにあたり翻訳者の慎重な選択が前提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べての翻訳において重要なポイントは原文の意味を翻訳文の読者が理解しやすい正しい言葉に訳すことであり、それは翻訳文の文化に合わせた異文化の受容と文化変容が最も自然であり、かつ適切に行われることを意味する。

本稿の考察の結果は翻訳文読者のニーズと期待に応える翻訳の質の向上に寄与し、翻訳能力の向上を図る翻訳教育の現場で積極的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期待される。

論文分野：その他の日本語学

キーワード：異文化受容、翻訳戦略、親しみのある翻訳、親しみのない翻訳、忠実性

■ 오경순 (吳京順)

가톨릭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ksohlee@naver.com

- 投稿日 : 2017년 9월 30일
- 審査開始 : 2017년 10월 22일
- 審査完了 : 2017년 11월 17일
- 掲載確定 : 2017년 11월 24일